

#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에 대한 의식\*

-서울·대전·부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정인희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최선형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강순제

## 目 次

I. 서론	1. 한복에 대한 태도
II. 선행 연구 고찰	2. 한복 착용의 상황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
III. 조사방법	3. 한복 선호
1. 질문지 작성	V. 요약 및 결론
2. 자료수집	참고문헌
3. 분석	ABSTRACT
IV. 결과 및 논의	

## I. 서론

1996년 12월 4일 정부에서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선포하여, 한복 활성화의 계기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수차례 시도되었던 한복 개량 및 생활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시도 또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한복 생활화 운동은 주로, 활동 및 관리에 따르는 기능을 개선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며, 생산과 유통을 합리화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사항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 도시 여성의 의생활 전반에서 한복은 과연 어떤 옷으로 인식되고 있고, 일상복이 된 서양복과는 어떻게 다른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한복 관련 연구들을 일별하여 볼 때, 복식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구매와 착용에 관한 실태 조사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자료의 수 또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류 산업과 맞물려 발전해야 하는 의류학이라는 학문의 큰 성격상 사회과학적 접근시의 연구대상은 일상복으로 정착된 서양복이 될 수 밖에 없었던 탓이다.

\* 본 연구는 1996년도 문화체육부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그러나, 민족 복식으로서의 한복에 대한 관심은 결코 경감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관심이 확문으로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한 단초로서,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에 대한 의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함의는 이후의 연구들에서 분석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복 착용의 생활화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에 대한 태도, 한복 착용 상황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한복 선호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 시점에서 한복 착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II.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 한복에 대한 태도, 한복의 상황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 한복 선호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많지 않다. 황춘섭<sup>1)</sup>과의 최영미·조효순<sup>2)</sup>의 연구, 그리고 잡지 『아름다운 우리옷』 1994년 5월호에서 진행한 실태 조사의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복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황춘섭 (1977)은 우리옷 착용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 고유의 옷이니까 입는다(36.8%), 품위있고 아름다워서 입는다(20.1%),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입는다(17.7%), 행사에 필요해서 입는다(17.8%), 우리 정서가 담긴 때문에 좋아서 입는다(6.5%), 기타(1.1%)의 순위로 밝혀져,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품위있고 아름답다는 평가를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의생활 계획에 대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우리옷을 주로 입겠다’는 응답이 많아 우리옷 우선의 경향이었으나 50대 이전의 연령층에서는 ‘양복을 주로 입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옷을 입겠다’와 ‘자손들에게도 가끔은 잊지 않고 우리옷을 입힐 필요가 있다’에 거의 모든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현대인의 의식 속에 ‘우리옷을 입고 지내겠다’는 생각이 내재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황춘섭의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이 1975년 이전임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의 60대는 한복을 입으며 성장한 세대였으므로, 그들이 ‘우리옷을 주로 입겠다’고 했던 것은 성장과정에서의 친숙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영미·조효순(1989)의 연구에서는, 한복이 예복용으로 우아하고 품위가 있고, 몸매를 감추어 주며 편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복 선호 내용을 보면, 디자인에 있어서는 무난한 기본형(47.9%)과 접잡고 고상한 형(41.0%)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색상에 있어서는 착용자에게 어울리는 색(31.5%), 무난하고 접잡은 색(26.8%)과 자신이 좋아하는 색(21.9%), 문양에 있어서는 무지(49.4%)와 자수(23.8%)에의 선호가 높았다.

『아름다운 우리옷』(1994)에 따르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통선을 유지한 전통한복이 39%, 전통선을 유지한 개량한복이 42%, 전통선이 개량된 개량한복이 16%, 전문지에서 본 모델 의상과 같은 디자인이 3%로 응답되었다. 전통선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81%나 되어 한복의 우아한 멋은 전통선에 있다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입어 보고 싶은 한복 원단은 명주 26%,

1) 황춘섭,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복식』 (1호, 1977), pp.119~128.

2) 최영미·조효순, “한복의 구매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들 중심으로-”, 『복식』 (13호, 1989), pp.135~150.

모시 28%, 갑사 26%, 노방 9%, 기타(누비 4%, 그림옷, 생모시 등) 9%였다.

이상에서 보면, 한복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이 높으며, 선호 역시 전통을 유지하는 기본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윤숙(1989)<sup>3)</sup>이 개화기 이래 우리나라의 한복이 개량되고 수용되는 과정의 중요한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해방 이전에 수용된 개량 한복은 실용성을 위한 통치마 저고리였고 해방 이후에는 예복으로서의 치마 저고리여서 그 기능상에서는 완전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시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한복의 기본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던 형태라 했던 것과도 일치한다.

### Ⅲ. 조사방법

#### 1. 질문지 작성

한복에 대한 의식 조사를 위해 ① 한복에 대한 태도 ② 한복 착용 상황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③ 한복에 대한 선호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하였다.

한복에 대한 태도는 10문항, 한복 착용 상황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7문항이었으며, 이를 5점 평정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는 1점, '그렇지 않다'에는 2점, '보통이다'에는 3점, '그렇다'에는 4점, '매우 그렇다'에는 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한복에 대한 선호는 다지선다형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생활 속에서의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5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한복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을 구할 자료로 삼았다. 그밖에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파악을 위해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직업, 월평균 가족총소득, 주 성장지

역, 성장과정의 세대구성, 종교, 귀속사회계층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1996년 12월 12일에서 1997년 1월 6일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서울, 대전,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여성이었으며,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개인 응답법으로 800부를 배부하여 770부를 회수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0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지역별로 서울 321명(45.7%), 대전 170명(24.2%), 부산 211명(30.1%)였으며, 20대 197명(28.1%), 30대 145명(20.7%), 40대 217명(30.9%), 50대 이상 143명(20.4%)의 연령대 구성이었다. 기혼이 많았고(72.1%), 대학교 재학 및 졸업 학력자(50.6%), 주부(53.1%)가 과반수였다.

#### 3. 분석

자료는 윈도우즈용 SPSS 5.0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외에 일원분산분석, 요인분석, 쌍체비교,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카이사승 분석을 적용하였다.

### Ⅳ. 결과 및 논의

#### 1. 한복에 대한 태도

한복에 대한 태도 10개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표 2), 모든 문항에 대해 3.41~4.41의 점수를 보여, 한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으며, 연령별 유의차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3) 남윤숙,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 과정 연구」(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169.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전체 : 702)

인구통계적 변인	응답자 분포
조사지역	서울 321(45.7%) 대전 170(24.2%) 부산 211(30.1%)
연령	20대 197(28.1%) 30대 145(20.7%) 40대 217(30.9%) 50대이상 143(20.4%)
결혼여부	기혼 506(72.1%) 미혼 196(27.9%)
학력	초등학교 졸업 34(4.8%) 중학교 졸업 54(7.7%) 고등학교 졸업 195(27.8%) 대학교 재학 및 졸업 355(50.6%) 대학원 이상 57(8.1%) 무응답 7(1.0%)
직업	학생 118(16.8%) 주부 373(53.1%) 직장인 184(26.2%) 기타 16(2.3%) 무응답 11(1.6%)
월평균 가족총소득	100만원 미만 8(1.1%) 100만원대 85(12.1%) 200만원대 211(30.1%) 300만원대 201(28.6%) 400만원대 98(14.0%) 500만원대 이상 79(11.3%) 무응답 20(2.8%)
주 성장지역	대도시 398(56.7%) 중소도시 187(26.6%) 농어촌 113(16.1%) 무응답 4(0.6%)
성장과정의 세대구성	2대 505(71.9%) 3대 179(25.5%) 4대 15(2.1%) 무응답 3(0.4%)
종교	불교 216(30.8%) 기독교 215(30.6%) 천주교 120(17.1%) 기타종교 2(0.3%) 없음 147(20.9%) 무응답 2(0.3%)
귀속 사회계층	상상 8(1.1%) 상하 14(2.0%) 중상 214(30.5%) 중중 350(49.9%) 중하 80(11.4%) 하상 25(3.6%) 하하 4(0.6%) 무응답 7(1.0%)

<표 2> 한복에 대한 태도 요인

요 인	문 항 내 용	평균	요인부하량
한복에 대한 자부심 (변량 : 43.0%)	나는 한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16	0.82
	나는 한복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4.41	0.80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복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4.27	0.73
	축하연이나 명절 등에는 한복을 입고 싶다	4.03	0.68
	한복을 입는 것은 생활문화의 계승과 창조에 도움이 된다	3.96	0.57
	다음 세대에는 한복 착용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3.82	0.55
	전 체	4.11	
한복착용의사 (변량 : 15.7%)	보다 손질이 편한 옷감으로 한복이 만들어진다면 한복을 더 자주 입을 것이다	3.78	0.84
	적당한 가격과 품질의 기성한복이 시판된다면 구입할 것이다	3.60	0.83
	활동이 편한 변형한복이 있다면 한 번쯤 입어 보고 싶다	3.86	0.73
	새로 선보인 한복 입는 날에 다른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다면 나도 동참하고 싶다	3.47	0.63
		전 체	3.68

한국 도시 여성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한복에 대한 매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복에 대한 태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후 다른 변인과의 관계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10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 추출과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한 요인분석 결과(표 2), 10개의 문항은 2개의 요인으로 모아졌다.

요인 1에는 ‘나는 한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한복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복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축하연이나 명절 등에는 한복을 입고 싶다’, ‘한복을 입는 것은 생활문화의 계승과 창조에 도움이 된다’, ‘다음 세대에는 한복 착용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도적 요소

(행동경향)로 구성된다고 하는데,<sup>4)</sup> 요인 1은 한복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요인을 ‘한복에 대한 자부심’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의 43.0%를 설명하였으며, 문항간 신뢰도 계수는 .825였다.

요인 2에는 ‘보다 손질이 편한 옷감으로 한복이 만들어진다면 한복을 더 자주 입을 것이다’, ‘적당한 가격과 품질의 기성한복이 시판된다면 구입할 것이다’, ‘활동이 편한 변형한복이 있다면 한 번쯤 입어보고 싶다’, ‘새로 선포된 한복입는 날에 다른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다면 나도 동참하고 싶다’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 문항은, 일반적으로 한복 착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실제로 한복을 착용하겠느냐는 의사에 대한 질문으로, 한복에 대한 태도에서의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요인명은 ‘한복 착용의사’로 하였다. 전체 변량의 15.7%를 설명하였으며, 문항간 신뢰도계수는 .790이었다.

요인 1과 요인 2의 전체 평균 점수를 쌍체비교(paired t-test)로 비교하여 본 결과, 인지적·감정적 영역인 ‘한복에 대한 자부심’이 행동 의도 영역인 ‘한복 착용의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여( $t=17.64, p=.000$ ), 비록 한복에 대한 인지·감정적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인지

·감정 수준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복이라는 대상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자신의 착용행동으로 옮길 경우에 대한 판단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복 착용의사’ 문항들은 한복 착용시의 일반적 불만족 사항으로 알려져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한 문항들이었으므로, 한복 착용이 보편화되지 않는 문제는 다만, 활동이나 손질, 가격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기능적 개선이 행동을 의식 수준만큼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은, 광복 이후 한복 개량 및 생활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복 착용이 일상 생활에는 정착되지 못한 것을 설명해 준다.<sup>5)</sup> 한복의 기능이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양복의 실용성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운동이나 기능개선과는 다른 각도에서 한복 착용 연구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1996년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물에 한복이 포함되어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한복은 전통문화 유산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전통<sup>6)</sup>에 대한 태도와 한복에 대한 태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가를 알아

4) 임종원 등, 「소비자 행동론」(서울: 경문사, 1994), p.194.

5) 복식의 서구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다수의 한복착용자가 있었던 전후, 1954년의 국민생활 간소화 운동, 1955년의 국민생활 검소화 운동, 1956년의 신생활운동이 지속적으로 시도되면서, 재래한복의 형태를 개량하여 통치마를 착용하고 옷고름을 폐지하는 등 옷감을 절약하고 활동적인 의복을 장려하고자 하였으나 일상복으로서의 개량한복에는 그다지 효과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한복개량운동은 계속되었는데, 짧은 주름치마나 반소매 볼레로 스타일 저고리, ‘아리랑 드레스’ 등 양복의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개량한복들은 간편하고 활동적이기는 하나 한복 고유의미를 찾을 수 없고 경박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중들에게 외면되었다.

참조: 진미희, “한복번천에 관한 연구-1950년대 이후 여자 한복을 중심으로-”, 「복식」(15호, 1990), p.157; 홍나영, “한복개량운동에 관한 고찰-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15호, 1990), pp.144~148; 신소운,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복식의 도덕성에 관한 사적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60.

6)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통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대체로 세가지로 수렴될 수 있다. 첫째, 움직이는 시간의 개념에 기초하여, 이미 지나간 과거의 현상 즉 역사적인 시간선상의 지나간 시대에 해당되는 사건이나 사실 또는 관점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사용된다. 둘째, 문화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한 범주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셋째, ‘미풍양속’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범주의 경우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통의 개념은 첫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시대를 전통의 근거로 삼았다.

참조: 전경수, “전통편 머리말”, 「한국문화론: 전통편」(서울: 일지사, 1994), pp.9~11.

〈표 3〉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평균과 한복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항 목	평균	한복에 대한 자부심	한복 착용의사
세시풍속일 지키기 (설날, 추석, 한식, 정월대보름, 동지 등)	4.29	0.41*	0.28*
명절음식 준비하기 (송편, 팔죽, 오곡밥 등)	4.02	0.36*	0.24*
전통놀이 즐기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윷놀이 등)	3.78	0.43*	0.31*
전통혼례의 전수	3.70	0.36*	0.29*
전통예절교육 (절하는 법, 웃어른 모시기 등)	4.32	0.34*	0.22*

\*  $p < 0.01$ 

보기 위해 생활에서의 전통적인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생활에서의 전통적인 요소로는 ‘세시풍속일 지키기’, ‘명절음식 준비하기’, ‘전통놀이 즐기기’, ‘전통혼례의 전수’, ‘전통예절교육’의 다섯 가지를 추출하였다.

표 3에 나타난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각 항목의 평균 점수는 모두 3.70 이상이며, 전체 평균이 4.02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도시 여성들은 전통예절교육(4.32), 세시풍속일 지키기(4.29), 명절음식 준비하기(4.02), 전통놀이 즐기기(3.78), 전통혼례의 전수(3.70) 순으로 중요성을 평가하였으며, 연령별 유의차를 나타내 보이지 않아 모든 연령대에서 느끼고 있는 전통의 중요성 정도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과 한복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5항목 모두는 ‘한복에 대한 자부심’ 요인 및 ‘한복 착용의사’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한복 역시 전통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전통의 전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한복에 대한 자부심과 한복 착용의사는 높다. 그러나, 전항목에 걸쳐 ‘한복 착용의사’보다는 ‘한복에 대한 자부심’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역시 태도의 인지적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전통 전수

의 행동적 측면을 측정한다면, 한복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가 중요성에 대한 의견 점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통놀이 즐기기’의 중요성은 ‘한복에 대한 자부심’과도, 그리고 ‘한복 착용의사’와도 가장 상관이 높은 전통 관련 문항이었다. 한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놀이’처럼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임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한복 착용에 따른 심리적 반응, 즉 한복이 제공하는 심리적 효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한복 착용의 상황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

한복 착용의 상황적 적합성을 평가한 조사 결과는 표4와 같다. 한복 착용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상황은 명절(4.30), 약혼(3.98), 결혼(3.84), 제사(3.55), 장례(3.42) 순이었으며, 평상복(2.44)과 외출복(2.84)으로의 한복 착용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즉, 예복이나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전통복식 착용에는 긍정적이나 평상복으로서의 전통 한복 착용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한복 착용의 상황적 적합성 평가에 있어서는 제시된 모든 상황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제시된 7개 상황에서의 한복 착용이 적합

〈표 4〉 연령대에 따른 한복의 상황적 적합성의 차이

연령대	평상복	외출복	약혼복	결혼예복	명절	제사	장례
20대	2.48	2.79	4.09	3.94	4.51	3.78	3.49
30대	2.20	2.66	3.84	3.71	4.23	3.22	3.15
40대	2.50	2.86	3.93	3.76	4.21	3.50	3.14
50대 이상	2.56	3.04	4.04	3.95	4.21	3.64	3.39
전체	2.44	2.82	3.98	3.84	4.30	3.55	3.42
F값	4.28	4.21	3.70	3.23	8.81	8.79	5.93
유의수준	0.005	0.006	0.012	0.022	0.000	0.000	0.001

〈표 5〉 한복 착용상황 요인

요 인	문 항 내 용	평균	요인부하량
고유상황 (변량 : 36.5%)	제사 때 한복을 입는 것	3.55	0.86
	장례 때 한복을 입는 것	3.42	0.83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한복을 입는 것	4.30	0.52
특수상황 (변량 : 17.8%)	약혼복으로 한복이나 변형한복을 입는 것	3.98	0.86
	결혼예복으로 한복이나 변형한복을 입는 것	3.84	0.83
일반상황 (변량 : 16.4%)	평상복으로 한복이나 변형한복을 입는 것	2.44	0.88
	외출복으로 한복이나 변형한복을 입는 것	2.82	0.84

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었으나, 20대의 경우 전 항목에서 30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약혼복·명절·제사·장례의 상황에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20대 여성은 30대·40대·50대 이상의 여성들보다 실제 한복 착용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상황적합성을 응답하였다기 보다는 착용의 적합성에 대한 추상적인 태도를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복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 한복에 대한 자부심이 한복 착용의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도 상응한다.

반면, 한복 착용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경험이 많을수록 한복 착용이 익숙해져 적합성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장과정에서 한복을 착용하며 자라난 세대가 아니므로, 성장시의 의생활에 따른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착용 경

험 외에도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적 특성 등 50대 이상이 한복 착용을 더 적합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약혼복·명절·제사·장례의 상황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적합성을 응답했고, 결혼예복의 상황에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50대와 비슷한 점수를 보인 것을 보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상황에서의 한복의 효용을 20대가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한복이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 같다고 유추해 본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 한복 착용 7상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성분분석에 의해 요인추출을 하고 베리맥스 회전한 결과, 3개의 상황 요인을 얻었다(표 5).

요인 1에는 ‘제사 때 한복을 입는 것’, ‘장례 때 한복을 입는 것’,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한복을 입는 것’의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되었다. 변량

의 36.5%를 설명하는 이 요인을 '고유상황'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약혼복으로 한복이나 변형한복을 입는 것', '결혼예복으로 한복이나 변형한복을 입는 것'의 2문항이 포함되었고, 설명 변량은 17.8%였다. 요인명은 '특수상황'이라고 하였다.

요인 3에 포함된 문항은 '평상복으로 한복이나 변형한복을 입는 것', '외출복으로 한복이나 변형한복을 입는 것'이었으며 설명변량은 16.4%였고, 요인명은 '일반상황'이었다.

적합도가 낮은 '일반상황'이 다른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적합성이 높게 인식되는 상황들이 '고유상황'과 '특수상황'의 두 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두 상황 유형에서 한복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이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고유상황'이나 '특수상황'에서 착용하는 의복이 주는 심리적 영향의 차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다시 제기된다.

전반적으로, '일반상황'에 비해 '고유상황'과 '특수상황'의 적합성 평가는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서의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해 기능적 개선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한복 착용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의 한복 활성

화를 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상복으로서보다는 명절용이나 예복의 용도로서 한복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3. 한복 선호

실제로 한복을 착용하게 되는 경우에 한국 도시 여성들의 취향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타일, 색상, 배색, 무늬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였으며, 연령대별로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자승 검증으로 분석해 보았다.

#### (1) 스타일

스타일에 대한 선호는 표6과 같다. 전통형의 선호정도가 55.0%, 유행이 가미된 형은 29.4%이며 변형한복의 선호는 13.8%로 나타났다. 한국 도시 여성들은 한복의 형태로 전통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영미·조효순(1989)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복 선호 스타일의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유행이 가미된 형에 대한 선호는 전 연령대에 걸쳐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전통형의 경우 50대 이상의 선호가, 변형한복의

<표 6> 선호 스타일

스타일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 체
전통형	88	77	123	90	378 (55.0%)
유행이 가미된 형	61	42	64	35	202 (29.4%)
변형한복	42	24	20	9	95 (13.8%)
기타	1	0	3	1	5 (0.7%)
모르겠다	1	0	4	2	7 (1.0%)
전체	193 (28.1%)	143 (20.8%)	214 (31.1%)	137 (19.9%)	687 (100%)
Chi-Square	31.47(p=.002)				



<표 7> 선호 색상

색 상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 체
밝고 가벼운 색	28	22	23	10	83 (12.0%)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	116	91	122	82	411 (59.5%)
선명하고 눈에 띄는 색	27	15	22	16	80 (11.6%)
점잖고 중후한 색	21	14	45	30	110 (15.9%)
회색이나 검정색	0	1	2	0	3 (0.4%)
기타	1	1	2	0	4 (0.6%)
전체	193 (27.9%)	144 (20.8%)	216 (31.3%)	138 (20.0%)	691 (100%)
Chi-Square	24.32(p=.060)				

<표 8> 선호 배색

배 색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 체
상하 같은 색의 현대적 배색	38	32	60	64	194 (28.0%)
상하 다른 색의 현대적 배색	130	86	109	49	374 (54.0%)
전통에 따른 배색	28	27	44	22	121 (17.5%)
기타	0	0	2	1	3 (0.4%)
전체	196 (28.3%)	145 (21.0%)	215 (31.1%)	136 (19.7%)	692 (100%)
Chi-Square	44.92(p=.000)				

경우 20대의 선호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이가 많은 경우 젊은 세대보다 전통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세대보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이 59.5%로 압도적 선호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점잖고 중후한 색(15.9%), 밝고 가벼운 색(12.0%), 선명하고 눈에 띄는 색(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선호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색 상

한복 색상의 선호는 표7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3) 배 색

한복 배색에 대한 선호는 표8에 제시하였다. 상

하 다른 색의 현대적 배색이 54.0%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이 상하 같은 색의 현대적 배색(28.0%), 전통에 따른 배색(17.5%)의 순이었다. 한국 도시 여성들의 경우 스타일은 전통형을 고수하고자 했으나, 배색에 있어서는 전통을 따르기보다 현대적 배색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즉, 색보다는 선으로부터 전통을 느끼며, 선에 대한 독특한 미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선호 배색의 연령대별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상하 같은 색의 현대적 배색은 50대 이상이 더 선호한 반면, 상하 다른 색의 현대적 배색은 20대·30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색 조화가 주는 안정감과 다른 색 조화가 주는 경쾌함이 연령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에 따른 배색은 현대적 배색에 비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4) 무늬

한복 무늬의 선호도는 표 9와 같다. 자수가 44.

9%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은 무문직(17.1%), 자가드직(13.8%), 직접 그린 그림(11.6%), 나염(10.1%), 금박(1.8%)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분포도 이와 비슷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한복은 일상복으로 착용되는 서양복과는 다른 의미로 우리 의생활에 통합되어 있으며, 독특한 소비경험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 착용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복 착용에 관한 연구 영역을 확장·심화시키고, 체계화하기 위한 단초로서 진행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에 대한 태도, 한복 착용 상황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한복 선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한복 활성화 방안을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표 9> 선호 무늬

무늬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체
자수	100	67	79	51	297 (44.9%)
직접 그린 그림	17	19	29	12	77 (11.6%)
나염	15	15	28	9	67 (10.1%)
금박	2	0	6	4	12 (1.8%)
자가드직 (직물 자체에 무늬)	29	12	27	23	91 (13.8%)
무문직 (무늬없음)	26	25	37	25	113 (17.1%)
기타	1	0	2	1	4 (0.6%)
전체	190 (28.7%)	138 (20.9%)	208 (31.5%)	125 (18.9%)	661 (100%)
Chi-Square	27.18(p=.076)				

1996년 12월 12일에서 1997년 1월 6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여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02부의 응답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도시 여성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한복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한복에 대한 태도 10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한복에 대한 자부심'과 '한복 착용의사'라는 두 개의 요인을 얻었다. '한복에 대한 자부심'은 '한복 착용의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여서, 한복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지·감정이 그대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은 한복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전통놀이 즐기기'의 중요성은 한복에 대한 태도와 높은 상관 관계에 있어, 한복의 심리적 효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복 착용의 상황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약혼복·결혼예복·명절·제사·장례시에는 적합한 것으로, 평상복·외출복의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한복 착용 상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제사·장례·명절의 '고유상황', 약혼·결혼의 '특수상황', 평상복·외출복의 '일반상황'으로 구분되어, '고유상황'과 '특수상황'의 한복 효용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국 도시 여성들은 전통형 한복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20대의 경우 변형한복 수용 여지가 타연령대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색상과 배색에 있어서는 '은화하고 부드러운 색'의 '상하 다른 색의 현대적 배색'이 대다수에 의해 선호되었으며, '자수'로 무늬를 놓은 것을 좋아하였다. 선에 있어서는 전통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색에 있어서는 현대적 감각에 편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한복 착용의 비활성화가 한복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한복에 대한 자부심이 비록 높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복을 일상복이나 외출복으로 입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한복 착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고유상황이나 특수상황 중심으로 도시 여성들의 한복 착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착용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소재나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복 스타일 선호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우 타 연령대의 여성들보다 변형한복 선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형한복의 착용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변형한복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선은 살려야 하며, 색채나 배색 면에서는 현대화를 피해 볼 수 있겠다.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뚜렷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은 소비자들이 '한복'이라는 옷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한복 착용으로부터 기대하는 상황별 효용은 어떤 것인지, 이와 관련한 소비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여겨진다. 특수상황이나 고유상황, 혹은 일반상황의 어느 쪽인가에 따라 착용하고 있는 의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심리적 만족의 내용은 달라질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한복이 양복보다 더 많은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수상황에서 혹은 고유상황에서 한복 착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복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또 일반상황에서 변형한복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복의 어떤 측면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 향후 상황과 한복 효용을 관련시킨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복 착용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가 거듭됨에 따라 오늘날의 우리 의생활에 한복을 합리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남윤숙,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 과정 연구」(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신소윤,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복식의 도덕성에 관한 사적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임종원 등, 「소비자행동론」(서울: 경문사, 1994).
- 전경수, 「한국문화론: 전통편」(서울: 일지사, 1994).
- 진미희,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1950년대 이후 여자 한복을 중심으로-” 「복식」(15호, 1990).
- 최영미·조효순, “한복의 구매실태 및 구매요인에 관한 분석연구-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복식」(13호, 1989).
- 홍나영, “한복개량운동에 관한 고찰-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15호 1990)
- 황춘섭,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복식」(1호, 1977).
- 「아름다운 우리옷」(1994년 5월호).

## ABSTRACT

The Consciousness of Korean Urban Women  
for Wearing Han-Bok,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In the areas of Seoul, Taejeon and Pusan-

Han-Bok presents a unique consumption experience different from Western dress, which is common to our clothing lif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the necessity of broadening, deepening, and systematizing a research related to the social aspects of Han-Bok.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10 statements of attitude to Han-Bok, 7 statements of the evaluation of the occasional appropriateness of Han-Bok, preference questions about style, color, harmony and decorative materials of Han-Bok was developed, which includes 5 opinion statements of the importance of tradition and some demographic variables.

During December 1996 and January 1997, the women aged above 20 responded to it, and finally 702 data was analyzed.

Korean urban women have positive attitude to Han-Bok. And the conceit about Han-Bok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intention to wear it.

The most properly evaluated occasion for wearing Han-Bok was 'holidays' like Seolnal and Chuseok. Han-Bok was evaluated improper for casual wear and out wear. Factor analysis of 7 occasions determined 3 factors : traditional occasion, special occasion and casual occasion. It is needed to identify the efficiency of Han-Bok according to each different occasion.

Korean urban women preferred the style of traditional line, soft color and modern harmony. In a viewpoint of tradition, they put more importance in the line of Han-Bok than they do in the color of it.